

1. 종교다원주의 배격
1. 동성애 반대
1. 차별금지법 반대
1.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 1268호
2월 22일
2025년
토요일

牧羊新聞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서울 다-07857 주관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탄핵심리 계속하면 무서운 시민 저항”

보수 기독교계, 공동 성명 통해 헌재에 경고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지난 2월 13일(목) “헌재는 탄핵심리를 당장 기각하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전국17개광역시도·226개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및 전국기독교총연합회, 자유한국교육원이 동참했다.

이들은 “심리를 계속한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헌재 재판관들은 을사오적 이완용이 되는 것이며, 인내하는 시민들의 견집을 수 없는 분노를 야기시키고 나아가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시민 저항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그 이유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은 내란의 피대상자는 될 자라도 내란 주동자는 절대로 될 수 없다 ▲국회에서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심의 절차가 없어 무효이다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모든 의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 의결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 탄핵에 일사부재의 원칙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입법을 하는 국회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며, 또한 국회는 모든 의제에 대해서 충분히 숙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에 대한 예우상 규금은 있을 수 없다. 이는 대통령을 선출한 모든 국민을 규금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헌재 심리 중 계엄에 대한 지시를 왜곡시켜 음해한 자의 거짓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므로 검찰조서 증거제택은 불법이다 ▲마비된 국정을 살려 점점 침체되는 경제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속히 대응해야 한다 등을 꼽았다. 다음은 성명 전문.

헌재는 탄핵심리를 당장 기각하라

헌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탄핵심리를 시작하지 않았어야 한다. 심리를 계속한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헌재재판관들은 을사오적 이완용이 되는 것이며, 인내하는 시민들의 견집을 수 없는 분노를 야기시키고 나아가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시민 저항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1.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다.
2. 대통령은 내란의 피 대상자는 될 자라도 내란 주동자는 절대로 될 수 없다.
3. 국회에서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심의 절차가 없어 무효이다.
4.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모든 의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해야 한다.
5. 대통령 탄핵 의결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 탄핵에 일사부재의 원칙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입법을 하는 국회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며, 또



한 국회는 모든 의제에 대해서 충분히 숙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6. 대통령에 대한 예우상 규금은 있을 수 없다. 이는 대통령을 선출한 모든 국민을 규금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7. 헌재 심리 중 계엄에 대한 지시를 왜곡시켜 음해한 자의 거짓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므로 검찰조서 증거제택은 불법이다.

8. 마비된 국정을 살려 점점 침체되는 경제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속히 대응해야 한다.

세계 역사는 망국의 원흉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후손은 물론 친지들과 동료들도 함께 그 죄과를 반드시 치러야 했다. 그들은 미국은 물론 서방 어느 나라에도 입국할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가족들과 친지들과 동료들에게 살아갈 동안 평생 씻을 수 없는 멍에를 씌우지 말며, 매국노가 되지는 말라. 지금이라도 양심고백하거나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는 전문가로서 그 책임을 지는 현명한 애국자가 되기를 바란다.

세계에서 공산국가들은 모두 무너졌다. 의지하지 말라. 마지막 남은 북한은 기아전상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중국도 기후재앙, 전염병, 건설업 디폴트, 경기침체, 군부 반란으로 무너지고 있다.

미국과 서방의 혹독한 경제제재와 중국인들이라면 세계 모든 곳에서든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군대는 전쟁 경험이 없고 제작한 첨단무기는 모두 그 기능이 부실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은 광시사건, 문화대혁명 사건과 천안문광장 사건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다. 아무리 충성할 자라도 숙청하는 것이 그들의 생리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고 있는 기술대국이자 경제대국이자 문화대국으로서 이 나라에 살고 싶어서 몰려오고 있다. 이 행복과 자유를 정녕 포기할 것인가? 단일 민족, 같은 문화로 유구한 반만년 역사를 이어온 유일한 나라이자 놀라운 나라 대한민국을 팔아버리려는 천인공도할 매국노들이 되지 말라.

헌법재판관들이여, 돌아서라! 용감하게 돌아서서 탄핵심리를 기각하라. 나아가 선관위장을 역임한 자로서 부정선거까지 밝혀라. 시민들은 당신들을 애국자로서 예우할 것이다. 여러분의 솔선수범이 모든 사람의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나라와 국민을 지키며 민생을 살리고 국제사회에서 국격을 높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바른 역사는 말한다. “중국은 역사상 한국의 일부이었다. (삼백강 선생 저서, 현존 최고의 역사학자) 한국은 무수한 외침을 받았다는 것은 거짓이다. 유영봉 조선일보기자의 검증되지 않은 고위 측하 논문에 931호로 표현했다. 고증되거나 다른 사람과 검증해보지 않은 자신의 가설일 뿐이다. 우리는 오천년을 이어온 강대국이었던 때문이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나아간다 할 자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고전 12:6)

그러므로 모두가 하나님께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전국17개광역시도·226개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및 전국기독교총연합회, 자유한국교육원



‘돌아오는 사람들,
되돌아가는 사람들’



조용목 목사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행 14:15, 딤후 4:7~11)

먼저, 돌아오는 사람들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필수적이고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 사함을 얻게 하고, 회개는 생명을 얻게 하며,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회개는 회개 없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의 근본은 하나님을 등진 인생이 철저히 완전하게 방향을 전환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에게 이러한 진리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돌아온 방자 이야기입니다.(눅 15:11~32) 사람의 행위 가운데 비할 데 없이 복되고 축복 받을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전환을 한 사람은 세상으로 되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으로 되돌아가버리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첫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여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1세대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목적이지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도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여,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민 14:2~4) 그들의 불행과 비극은 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죽었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핍박이나 환난이 닥칠지라도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두려움을 정복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짐스럽게 여기고 고 통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되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해를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사람은 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 해서는 안 되는 것도 많고 한편으로 해야 할 것도 많아서 힘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

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참된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생명의 떡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요 6:51,58). 그러자 제자들 중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이러므로 제자들 중에 여럿이 떠나버리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요 6:66)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이유는 자기의 사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고향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 편에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넷째,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되돌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 데마, 누가, 그레ске 그리고 디도 등이 그의 수감생활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데마는 세상의 탐욕하고 화려한 유혹의 손길에 붙잡혀 세상으로 되돌아가버렸습니다.

결론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되돌아가지 않는 성도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만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신다는 믿음을 확고부동하게 가지고 있는 성도는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둘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삶의 가장 큰 가치와 소득으로 여기고 가장 큰 보람과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은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셋째, 우리 주 예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신 분은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주님의 환영과 배푸시는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신 성도 여러분은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이나 유혹을 만나도 되돌아가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장차 의로우신 주 하나님께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헌재 절차 비판한 현직 검사장...

“일제 치하보다 못하다”

헌재의 재판 진행 태도 문제 삼아...이영림 춘천지검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절차 진행 방식에 대해 현직 검사장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은 지난 2월 12일(수)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헌재의 재판 진행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 지검장은 글에서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이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간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최소한의 설명 기회마저 차단하고, 대통령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는 것조차 불허한 것은 심각한 절차적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같은 날 정청래 소추위원장에게 추가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한 것과 대비되며, 공정성은 논

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일제 강점기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 후 일본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당시를 언급했다. 그는 “당시 일제 재판부조차 안 의사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부여했고, 안 의사는 1시간 30분 동안 의견을 밝혔다”며 “재판부는 안 의사가 스스로 할 말을 다 했으니 더 이상 할 말은 없다”고 할 때까지 경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법조인의 기본 소양이며, 대한민국은 절차법 분야에서 ‘우주 최강’이라 자부하는데, 지금의 헌재는 그런 원칙을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검장은 “대한민국 법원이 과거 방어진 보장을 이유로 특정 정치인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는데, 지금 헌재는 적법 절차와 방어권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특정인을 희생양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재가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인해 이미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과 증거법적 원칙이 무너지면, 결국 헌재도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기관으로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지검장은 “헌재가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기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보려고 내 할아버지가 의병을 일으키고, 내 아버지가 자유를 위해 참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cdaily



일본 땅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

일본지방회 정기지방회, 회장에 백석 목사 재추대

교단 일본지방회(백석 목사) 2025년도 정기지방회가 지난 2월 3일(월)과 4일(화) 일본 사마에 지역에 있는 사마에순복음교회(염순복 선교사)에서 교단 선교국장 임형순 목사 내외를 비롯 교단 총무 오세준 목사, 염순복 선교사, 백석 선교사 내외, 최남도 선교사 내외, 전영성 선교사 내외, 김복순 선교사, 정성애 선교사, 이방영, 사지마요 전도사(부교역

자) 총 14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신 임원진을 선출하는 한편 일본복음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더욱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정기지방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일본지방회장 백석 목사(우에노임마누엘교회)의 사회로 시작, 정성애 선교사(오사카 메구미교회)의 대표기도, 이영

미 선교사(우에노임마누엘교회)의 성경봉독, 선교국장 임형순 목사(순복음아멘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임 목사는 막 4:26-29 말씀을 본문으로 ‘땅이 열매를 맺기까지’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조용하게 천천히 그러나 온전히 임하시기에 낙심치 말고 일본 땅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모두가 될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설교 후 최남도 선교사(하카리복음교회)의 축사, 오세준 목사(잠중은교회, 교단 총무)의 특별축사, 염순복 선교사(사마에 순복음교회)의 권면 및 인사, 그리고 선교국장 임형순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 회원들은 회소에 의해 정기지방회를 열고 각종 회무를 처리했으며 신입회원 가입, 임원선출, 사업계획 수립 등 각종 업무를 확정했다. 일본지방회장에는 백석 목사(우에노임마누엘교회)를 회장에 재추대하기로 했다. 정기지방회를 마친 후 숙소로 이동해 함께 식사하며 일본복음화를 위해 대화를 나누고 서로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대한민국원로목사의회 준비위 출범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원로들이 나서야

(사)대한민국원로목사의회 설립준비위원회가 지난 2월 7일(금)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소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글로벌리아홀에서 설립준비위원회 감사예배를 드리고 (사)대한노인회중앙회 대표회장을 역임한 김호일 목사를 초대 대표회장으로 추대했다.

이날 예배는 김마리아 목사 사회로 정도출 목사의 대표기도, 김민희 목사의 성경봉독, 김원식 목사의 사 61:1-3절을 본문으로 한 ‘이렇게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특별히 이날 참석한 교계 원로들은 특별기도시간을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계를 위해서’, ‘원로목사의회를 위해서’ 각각 기도를 인도했으며, 이어 이형춘 목사의 봉헌기도, 이주태 장로의 광고 후 김태경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회의는 김동철 목사의 사회로 대표회



장 김호일 목사의 인사말, 한창영 목사의 원로목사의회의 설립취지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김호일 목사는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교계 원로들이 나서서 수습을 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어야 하는데 이런 원로들이 없어 혼란에 빠져있다.”라며, “이제 우리 원로들이 모여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 우리 모두 이 사명을 위해 발벗고 나서

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예장통합경총회장 김동권 목사, 기성경총회장 이윤규 목사의 격려사 등이 이어졌다. 회의는 계속해 총재를 비롯한 의회를 함께 이끌어갈 임원추대는 대표회장 김호일 목사를 비롯한 이주태 장로 등으로 추대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키로 하고 조직이 완료되는대로 오는 4월경 설립 및 취임 감사예배를 드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예장개혁신회, 총회신학 졸업예배

신학부 제37회, 연구원 제33회, 학술원 제21회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신회)총회 총회신학(총장 정서영 박사)은 지난 2월 6일(목) 오전 11시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에서 졸업식을 갖고 복음전파의 최일선에 서 사명을 감당할 그리스도의 군사를 배출했다.

이날 졸업식은 최광호 교수의 사회로 광주분원 학장 임강권 교수의 기도, 순천분원 학장 김양심 교수의 성경봉독, 바리톤 박정은 교수의 찬양, 총장 정서영 박사의 고후 12:1-10 말씀을 본문으로 한 ‘내게 주신 은혜’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드러졌다.

신학부 제37회, 연구원 제33회, 학술원 제21회 졸업생을 배출한 이번 졸업식에서 신학부 대표 김하윤, 연구원 대표 김진만, 학술원 대표 조재만 학우가 졸업생들을 대표해 졸업장을 받았다.



이번 졸업식에서 학술원장상은 정진영 학우, 총장상은 이인범 학우 등 17명이, 연구원장상은 최세훈 학우 등 17명이, 논문상은 이정인 학우가, 봉사상은 신상경 학우 등 32명의 학우가 각각 받았다.

졸업예배는 졸업생 일동의 교가제창 후 총

장 정서영 박사의 축도로 마쳤다. 총회신학은 합동개혁 총회인신 신학으로 최고의 학업시설과 최고의 교수진을 자랑하는 청교도 개혁주의 보수신학이다.

서울 본원 및 전국 15개 지역에 분원과 일본에 나리타와 후쿠오카 분원이 있다.

한기총 총무협, 서승원 회장 취임

“국가적 위기 앞에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협의회는 지난 2월 6일(목) 서울 연지동 한기총 본부에서 총무협 회원 및 한기총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4회기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회장 서승원 목사는 “이번 호기 총무협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 자체 사역 확장, 회원 재교육 등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승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총무협은 단순 친목을 넘어 국가와 사회를 위한 유익한 일을 하고자 한다. 우리는 국민을 보듬어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워크샵 등 친목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해외 선교지를 방문해 함께 맘 흘리며, 선교사를 격려하는 의미있는 일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취임식에서는 직전회장 서기원 목사가 서



승원 회장에게 취임패를 전달했고, 서승원 회장은 서기원 목사에게 공로패를 통해 지난 노고와 업적을 치하했다. 이 외에도 서 회장이 신임 임원들에게 임명패를 수여했다.

이어 기흥철 장로(합동보수)와 김정환 목사(한기총 사무총장)가 축사를 했다. 김정환

목사는 “총무협은 그간 한기총의 안정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 교회를 위한 총무협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취임식에 앞서 드러진 예배는 박동휘 목사(부회장)의 사회로 이종복 목사(부회장)의 기도, 한기총 명예회장 김용도 목사의 ‘불법은 죽는다’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김용도 목사는 “최근 국가적인 혼란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철저한 법과 원칙만이 혼란을 잠재우고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총무협은 월례회를 갖고, 총무협 부서별 사업계획 및 예산, 아카데미 개설 준비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

한기원 신임 대표회장에 김성만 목사

어려운 교계 원로목사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한기원) 제27대 대표회장에 김성만 목사가 취임했다.

김성만 신임 대표회장(새누가선교회 대표회장)은 지난 2월 6일(목)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그레이스홀에서 드러진 취임 감사예배에서 한기원의 57차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관심과 기도, 참여를 당부했다.

김성만 신임 대표회장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 동안 한기원 후원이사장을 하면서 누구보다 한기원의 비전과 이슈를 잘 알고 있다. 이것을 토대로 먼저 한기원 중앙회를 설립하고, 전국 시도 지사를 설립해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 분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사 60:1)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제1부는 임찬양 목사의 찬양인도와 김성만 신임 대표회장의 개회선언으로 막이 올랐다. 제2부는 한기원 사무총장



이선규 목사의 사회로 강시대 전 총장 박신배 목사의 대표기도, 누가신학대학원 원우나운서 박사의 성경봉독 후 한기원 찬양단(지휘자 김현실 목사)의 특송, 세계복음화협의회 총재 피종진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특별기도 시간은 기장 전 총회장 유정성 목사가 ‘한기원 부흥발전을 위하여’, 누가선

교연합교회 김선필 목사가 ‘세계선교를 위하여’,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공동회장 김봉옥 목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전 총회장 김홍철 목사가 ‘한국교회를 위하여’, 한국신학연구원 원장 최홍영 목사가 ‘나라의 안정과 평화 통일을 위하여’ 각각 기도하고 참석자들은 다 함께 합심기도를 했다.

CTS, 서울시의회와 ‘7000미라클 박스 기부 전달

최현탁 사장 “힘겨운 이웃들다시 일어나는 기적의 도구되길”

CTS기독교TV(회장 강경철, 이하 CTS)가 2월 10일(월)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서울시 취약 계층을 위한 ‘7000미라클 박스 기부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기부전달식에는 CTS 최현탁 사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김현훈 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현탁 사장은 “이번 미라클 프로젝트가 힘겨운 이웃들이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는 기적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창사 30주년을 맞이한 CTS가 공생애를 시작하신 서른 살의 예수님처럼 주변의 이웃들을 위로하며 섬기는 일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히 이날 전달식에는 CTS 주요 임원들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이 후원품 배분 봉사를 함께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봉사활동을 통해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양천희망

돌봄센터, 꿈터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서울 전역 22개 기관에 266개의 미라클박스가 전달됐으며 서울시 내 장애인 주간보호 단기거주 시설 이용자 1,000여 명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봉사에 참여한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은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에게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게 더욱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말보다 실천과 봉사를 앞세우는 성실한 시의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섬김과 나눔의 방송 CTS는 지난해 11월부터 ‘미라클 프로젝트’를 펼쳐왔다. CTS는 대표 프로그램인 ‘7000 미라클’을 통해 한 상자당 5만원의 후원을 받아 난방용품, 간편조리식품, 위생용품 등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채워 취약계층을 섬겼다.



6년 만에 석방된 선샤오춘 목사 위해 기도 요청

순교자의소리, 신학생들 감추고 처벌 감수하며 신앙 지키

중국에서 6년 이상 수감되었던 선샤오춘(Shen Shaochun) 목사가 지난 2024년 말, 윈난성 시샹반나 교도소에서 조기 석방됐다. 그는 2018년, 미얀마에서 중국으로의 불법 국경 횡단을 조직했다는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해왔다.

선 목사의 석방은 국제적인 기독교 단체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그리고 편지 보내기 캠페인의 결실로 평가된다. 순교자의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는 그가 수감된 동안 세계 각지의 기독교인들이 편지를 보내도록 독려하며, 교도소 관계자들에게 그의 상황을 주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는 6년 3개월 만에 조기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선샤오춘 목사는 지난 1990년대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을 시작한 후, 2006년 전임 목회자로 헌신했다. 2016년부터 미얀마 와주(Wa State)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생수

초등학교(Living Water Elementary School)’를 설립하는 등 교육과 선교에 헌신했다. 그러나 2018년, 해당 학교의 신학생 4명이 미얀마 경찰에 체포된 후 중국 경찰에 인계되면서, 그 역시 체포되었다. 법정에서 그는 신학생들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처벌을 감수하며 신앙을 지키려 했다.

그의 수감 생활은 가혹한 환경 속에서 지속되었다. 특히 고열압과 차야 불증, 그리고 한쪽 눈 실명 등 건강 악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더욱이, 교도소에서 시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작업을 배정받아 남은 한쪽 눈의 시력도 급격히 저하되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고, 지속적인 기도로 신앙을 지켜나갔다.

발달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위해 협력기로

함께하는재단 굿월스토어, 두레울 사회적협동조합과 업무협약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재단 굿월스토어(대표이사 장형욱)는 지난 1월 15일(수) 경기도 남양주시 두레울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학영)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굿월스토어 마석점에서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협약이다. 또한 이번 업

무협약으로 양측은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키로 했으며, 아울러 지역 사회공헌 확장 및 상호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키로 약속했다.

두레울 사회적협동조합은 남양주시의 사회복지사 20여 명이 2015년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시작으

로, 2023년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사업을 수행하는 등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홍성만 함께하는재단 굿월스토어 상임교문은 “두레울 사회적협동조합과 굿월스토어가 업무협약을 통해 발달 장애인들의 자립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양 기관이 함께 협력하게 되어 감사하다”면서 “오늘 협력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함께하는재단 굿월스토어는 이번에 업무협력을 체결한 마석점 외에도, 서울 양천점과 문정점, 송파점, 은평점, 강동점, 경기 안양점 등 서울과 수도권에 11개의 매장을 두고 있다. (대표전화:1644-9191)



KWMA ‘건강한 선교 방향’ 위해 선교논문 공모

10월31일 마감, 우수 논문에 시상 예정

한국세계선교협의회(사무총장 강대홍 목사, 이하 KWMA)가 한국교회에 건강한 선교 방향을 제안하고, 차세대 선교 지도자를 발굴하기 위한 ‘선교논문 공모전’을 시행한다.

공모전 연구 주제는 △빠르게 늘고 있는 비서구권 교회의 타문화권 선교 참여를 연구하는 글로벌 사우스 선교 운동 △이주민 인구 300만 명 시대의 국내 이주민 사역 △한국 선교의 세대교체와 발전을 위한 미래 세대 선교 동원 △컴퓨터와 온라인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새로운 선교 영역으로 출현한 디지털 선교 등이다.

우수 논문은 상장과 함께 대상 1인(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2인(각 150만원), 우수상

2인(각 100만원) 등 총 5인에게 시상할 예정이다.

국내외 대학원에서 선교학 및 신학 전공의 석사 과정생부터 박사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국내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 과정 중인 외국 국적 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논문 언어로 국문 또는 영문을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 언어에 가중치는 없다. 논문작성은 한국선교신학회 또는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의 투고 규정을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접수 마감일은 10월 31일 오후 5시까지이며, 결과 발표는 12월 중에 해당자에게 안내하고, 2026년 2월 중에 시상할 예정이다.

■ 생명의 말씀 ■



권 용 덕 목사

- 강원지방회장
- 철원순복음교회 담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아픔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듯이 성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은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불찌더나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하고 질척 같은 어두움의 환경이 몰려올 때 주의 재림의 영광이 가까울 때 성도들을 사명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비 하시고 사백을 깨우십니다.

하늘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설계도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목사를 주십니다. 이 러므로 사명자는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고 사명의 자리에서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 기쁨과 열정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해 사명자가

세워집니다.

사명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 입니다. 성령충만한 자입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20) 갈보리언덕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의 야망과 욕심은 결코 우리 속에 자리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온 세계에 파도처럼 넘치고 있음을 믿고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천사로부터 들려오는 영원한 복음 전파사명에 충실함으로 많은 생명을 살려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광야에서 모세처럼 사도바울처럼 세례요한처럼 외로움과 기다림과 자기부인과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과정을 통해 세워집니다.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막 8:34)고 말씀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너는 나를 따르라” 하였고 바울에게 “가라 그리고 전하라”는 명령을 듣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광을 우상에게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의 명예를 위하여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물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영광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

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아버지가 주신 이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명자가 만물을 지으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서 “할렐루야 아멘”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의지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세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빛날 것입니다. 주의 제자 스데반은 성령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예복은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는 심판주를 보고 예언하였습니다.

2)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명자의 기쁨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 사명자는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가진 자로 생명을 살리는 영광이 더욱 넘치므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사명자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겸손과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공경해야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으

시는 심판 주 하나님만 두려워합시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사람에게 좋게 하려 말고 구원의 주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20) 우리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을 위해 일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가데스 므리바 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지 않음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바벨론왕 느부갓네살과 헤롯왕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 하므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주의 사자가 치므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저의 지난 36년의 묵화와 선교사역 그리고 가정생활을 돌아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고백하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다림과 두려움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과 불을 통과하는 고통과 실수가 있었지만 보혈의 능력으로 내 중심의 생각과 결정이 치료받고 마귀와 죄와 육신의 자아를 물리치려고 기도와 몸부림으로 주를 바라보고 언약의 하나님을 기다리므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

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사 30:18)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대로의 신앙과 성경대로의 사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나라와 민족을 깨웁시다. 자유민주주의 수호, 종교다원주의 배격,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반대, 입법부 악법 제정 저지를 위해 기도해 힘쓰고 불의에 저항하므로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따르는 사명자를 너무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바라보고 모든 일에 주의 이름에 합당한 명예와 찬송과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돌리며 살아갑시다.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를 사명자를 부르시고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지지 말고 사명으로 이겨야 합니다. 지는 지는 마귀의 종이 되고 버림받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만나와 흰 돌을 주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사백별을 주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고, 하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지혜롭고 착하고 충성 된 주의 종으로 성령충만한 사명자로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 정

한성연 이단백서 공동발간



한국성결교회연합회(대표회장 윤문기 감독) 소속 3개 교단이 ‘이단백서’를 공동으로 발간한다고 지난 2월 3일 밝혔다.

한성연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총회장 류승동 목사)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김만수 목사) 대한기독교노사렛성결회(감독 윤문기 목사)가 모인 연합단체다.

송실대 이운재 신임총장 취임



송실대학교 제16대 이운재 총장의 취임에 배가 지난 2월 4일 오전 11시 한경직기법관 대예배실에서 열렸다. 이 총장은 “16대 총장

으로서 주어진 소명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송실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가겠다”며 송실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성연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최근 서울 강남구 기성 총회 본부에서 전체 모임을 열고 이단백서 공동발간을 결의했다.

월드비전 자원순환 봉사활동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은 롯데케미칼 ‘프로젝트 루프’(Project LOOP)와 함께 최근 자원순환 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롯데 케미칼 프로젝트 루프는 지난 2020년부터 플라스틱 자원순환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페플라스틱 수거문화 개선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한동대일자리플러스센터 우수평가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한 ‘2024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연차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논 평

한국교회언론회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학생을 해치다니

지난 10일 대전에서는 교사에 의하여 어린 학생이 살해를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부모들은 학교에 교사를 믿고 아이들을 맡겼는데, 오히려 교사가 학생을 살해하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 교사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그에게 ‘업무 배제’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사고의 위험에 대하여 교육 당국도 교육청도 학교도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이다. 그 교사는 이미 7년 전부터 우울증 등으로 여러 차례 병가와 휴직을 반복하고, 평소에도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를 방심한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청이나 학교

에서 엄격하게 문제성 있는 교사들을 관리했다면, 이번과 같은 불행한 사건은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교사들에 대한 철저한 정신건강에 대한 조사나 검사 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매년마다 교사들에 대한 정신건강 상태를 조사한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지 못했다.

또 진보 좌파 교육감 등에 의한 ‘학생인 권조례’ 등을 강행함으로 교권은 추락하고 교사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아 교사들이 억압된 상태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초등학교 교직원들이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

이 지난 2020년에 4,819명에서 2023년에는 9,468명으로 두 배나 급증하였다. 이는 교사 1,000명당 37.2명꼴이다.

또 하나는 교사에 대한 철저한 인성, 적성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는 전문직종이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다루는 소중한 직업이기에 그에 맞는 인성과 적성은 필수이다. 만약 이런 것에 결격 사유가 있다면 철저히 걸러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사고들이 재발 되지 않겠는가? 교육부는 고위험군 정신질환 교사를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위 ‘하늘이밤’을 만든다고 한다. 이런 교사는 업무 배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사직에서 떠나게 해

야 한다.

그리고 정기적인 정신건강 검사를 해야 하며, 문제가 발견되는 교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분리해야 한다. 교육부의 2025년 예산은 총 104조 8,767억 원이다. 그 중에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을 위한 것은 무려 81조 3,000억 원에 달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 가운데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것도 매우 건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학부모는 학교와 교사와 교육 당국을 믿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다. 그런데도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것은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관계자들의 책임이다. 교육 당국과 학교는 문제가 있는 교사를 마치 ‘폭탄 돌리기’처럼 대한

다고 한다. 그래서 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정신적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또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교사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것도 철저히 돕고 점검해야 한다.

교사는 캠퍼스에 그림을 그리는 작가와 같다. 그 작가의 아름다운 예술성에 의하여 좋은 작품이 나오듯이, 무궁한 가능성과 꿈을 가진 아이들이 좋은 교사에게 맡겨졌을 때, 미래 세대를 책임질 사람들이 양육되는 것이다. 반면에 잘못된 교사를 만난 아이들은 학교를 통하여 상처와 희생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목양시론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목사들에게

전한길 강사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자유와 함께할 때 그 빛을 발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신앙의 자유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최근 기독교 CHTV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 전한길 강사의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목사들에게”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의 신앙적 자유와 교회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독일의 역사와 신앙의 자유

독일이 한때 기독교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히틀러의 등장과 나치당의 집권으로 인해 신앙의 자유가 억압된 사례가 있다. 당시 독일 교회 내에서도 히틀러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권력의 탄압 속에서 침묵을 강요당했고, 이는 유대인 학살과 같은 비극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될 때 교회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위협받는 순간, 교회는 침묵을 강요당하고 성도들은 신앙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대한민국의 신앙적 뿌리

대한민국은 오랜 기간 유교적 전통이 강

한 나라였다. 그러나 3.1운동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이 독립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듯이, 한국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적 신념을 넘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온 원동력이었다.

대한민국 초창기 제헌국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헌법을 제정했던 역사적 사실은 신앙이 국가의 기틀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독립과 정부 수립 과정에서 기독교적 가치가 깊이 스며들어 있었으며, 그 정신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신앙과 정치의 균형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정치적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다.

보수의 개념은 “인간의 소중한 삶, 가정의 가치, 결혼의 신성함,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며, 이는 기독교 신앙과도 맞닿아 있는 가치이다. 반면,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이들도 있으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치관이 신앙과 조화를 이루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슈들은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현실로 드러내는 문제이다. 이러한 법안들이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흐를 경우, 교회는 이에 대해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대응해야 한다.

목회자의 역할과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책임

교회 지도자들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한다. 많은 목회자가 성도들의 반응이나 사회적 분위기를 의식해 침묵하는 경향이 있지만, 신앙적 양심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교회는 세상의 흐름에 맞춰 변화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신앙의 본질까지 타협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부담이나 사회적 압박 속에서도 목회자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소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신앙은 단순히 개인적인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며, 국가를 세우는 근본적인 가치이기도 하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다시 한번 그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교회와 목회자는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 있어야 한다. 우리는 과거 신사참배를 거부하지 못했던 교회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3년 동안 교회가 폐쇄되고 예배가 중단되었을 때, 이에 침묵했던 결과는 현대판 자발적 신사참배와 다를 바 없었다.

오늘날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는 정책에 분별없이 침묵하고 동조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길이 아니다. 교회는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기억해야 한다.

강단에서 외쳐야 할 메시지

강단에서 목회자는 신앙의 본질과 진리를 담대히 선포해야 한다.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며, 시대적 도전에 맞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이다.

성경은 말씀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한복음 10:10)

만일 목회자가 눈치를 보며 침묵한다면, 이는 소금이 맛을 잃어 거리에서 밟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물려주지 못한다면, 그다음 세대는 결국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할 것이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목회자의 결단과 소명

전한길 강사는 평신도임에도 연봉 60억을 포기하면서까지 성경적 가치관을 외쳤다. 그는 부정한 정치 세력을 비판하며 신앙적 양심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 목회자가 성도들의 이타를 두려워하며 침묵한다면, 어떻게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성도들은 분명한 신앙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목회자가 “모든 것을 포용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중요한 신앙적 가치를 침묵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성경은 말씀한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답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요한계시록 3:16)

대한민국이 신앙의 자유를 위협받는 현실 속에서, 교회와 목회자들은 용기 있게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문

제가 아니라, 신앙과 자유를 지키는 거룩한 사명이다.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지금 대한민국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우리는 신앙과 자유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왜곡된 이념과 사회적 압력에 떠밀려 신앙과 자유를 잃어버릴 것인가?

만약 자유를 지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로 남을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분명한 신앙적 기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교회의 본질을 수호할 때, 대한민국은 더욱 건강한 나라로 세워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의 길이다.

@cdaily

최원호 목사(심리학 박사)
은혜제일교회 담임목사
저서 ‘나는 열중한 나를 사랑한다’

“대구 역대 최대”... ‘세이프 코리아!’ 한파 녹인 기도

동대구역서 주최 측 추산 15만여 명 운집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가 지난 2월 8일(토)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주최 측 추산 15만여 명(경찰 추산 5만 2천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열렸다.

한파 속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밀려든 인파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된 가운데, 탄핵 반대하는 이들이 결집하면서 갈수록 집회 규모가 커지고 있다.

최근 매주 이 집회 강단에 서는 한국사 전한길 강사 역시 강사로 참여해 열변을 토했

다. 동대구역 광장뿐만 아니라 역사 내외부와 인근 도로까지 인파가 몰리면서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혼잡을 빚었다.

부산, 서울, 광주,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온 시민들이 대거 참석해 탄핵 반대 여론의 강도를 보여줬다. 낮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강추위 속에서도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과 대구시 관계자들은 안전사고를 우려해 광장 인근 도로 통제를 강화하고 교통정리를 실시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대구에서 이 정도 규모의 단일 집회는 처음”이라며, “사전에 경찰력을 충분히 배치해 큰 충돌 없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동대구역 내 교통이 마비되면서, 대구도시철도 1호선 동대구역과 코레일 철도역에서도 극심한 혼잡이 발생했다.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역사 내부의 에스컬레이터 운행이 일시 중단됐으며, 역사 출입구 대부분이 인파로 가득 찼다. 동대구역

관계자는 “평소 출입구를 통해 이동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역사 내에서는 “6번 출구를 이용해달라”는 안내 방송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왔고, 일부 시민들은 공간을 피해 역사 2층이나 근처 상점들로 이동해 집회 상황을 지켜봤다.

이날 집회는 기존 보수 집회와 달리 젊은 층과 여성들의 참여율이 높았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끌었다. 20대 청년들은 “윤 대통령을 억울하게 탄핵시키려는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며 집회에 참가한 이유를 밝혔다. 30대 여성 참석자들도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며 탄핵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일부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정치적 행보에 대해 “비상계엄 발동이 놀라웠지만, 탄핵 시도를 막기 위해 지지 의사를 보이러 나왔다”고 말했다.

연사로 무대에 오른 전한길 강사는 헌법재판관들의 이념 편향성을 지적하며, 탄핵이 인용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탄핵 추

진은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며 정치적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 중 일부는 “사법부가 공정성을 잃고 대통령을 몰아가고 있다”며 헌 정권과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탄핵 반대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의혹 수사 촉구, 정치적 편향성 해소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 대구집회는 지난 2월 1일(토)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보다 네 배 이상 많은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집회 당시 경찰 추산 인원이 1만 30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동대구역 집회는 무려 5만여 명이 참여해 규모 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집회에 참석한 한 부산 시민은 “부산에서 열린 집회도 상당히 컸지만, 대구 집회는 그보다 열기가 더 뜨거웠다”며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동대구역 관계자들은 “이 정도로 많은 사람이 역사에 몰린 것은 처음 본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컸지만, 큰 사고 없이 집회가 마무리된 것이 다행”이라고 밝혔다.

©CT



8일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가 열린 대구 동대구역 광장이 인파로 인해 발디딜 틈이 없다. ©뉴스스

광주서도 ‘세이프 코리아!’ ... “지역갈등 넘어 대한민국 자유 위해”

3만여 명 운집한 가운데 금남로 일대서 진행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기도 모임인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가 15일 오후 ‘진보의 심장’이라 불리는 광주518문화광장 입구 금남로 무등빌딩 앞에서 개최됐다. 인간 성화복운동본부 박용기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기도회는 약 3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전남지방경찰청경무연합회 대표회장 이기봉 목사의 시작기도로 진행됐다.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광주 일어나야 먼저, 메시지를 전한 세계교회회 손현보 목사는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좌파와 우파, 동·서의 문제가 아니다. 29년의 탄핵이라는 기네스북에 오를만한 있을 수 없는 일을 민주당과 이재명 의원은 자신의安危를 위해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히틀러를 막지 못한 독일의 사례를 들며 “광주가 일어나야 대한민국이 변할 수 있으며, 살 수가 있다”며 “자기를 바다에 빠트리 죽이려 했던 자들도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를 위해 용서했던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였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이 아니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서로를 인정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아픔을 겪은 광주 시민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대한민국을 안아 주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며 “그려야 같기

같기 짝인 대한민국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좌·우파 진영의 문제가 아님을 기억하길 바란다. 만약 김대중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처지였다면 광주시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자유가 지켜지느냐 아니면 자유를 잃어버린 전체주의로 가느냐의 문제다.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전체주의의 국가가 되는 것보다 낫기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왔다. 여러분들이 역사의 아픈 부분을 짚을 때 역사는 광주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금란교회 김정민 목사의 메시지, 경남성서화운동본부 운동회장 이경은 목사의 ‘나를 살리는 기도’, ‘광주 성광청년’ 정민석·김현석 군의 청년발언, 호남대안포럼 주동식 공동대표, 코리아개혁TV 고흥석 박사의 메시지가 있었고, 댄서 YOON, 전자 바이올린 연주자 유에스터의 축하공연 이후 보수청년 음악 유튜브 드림통타이거, 전교조 출신 교사 유튜브 하세비, 김찬혁의 자유시민 발언이 있었다.

좌·우 지역갈등 아닌 오직 ‘상식과 애국심’으로

유튜브 그라운드C는 “광주가 일어나면 대한민국이 뒤집어지고, 대한민국이 사는 것을 믿는다”라며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우리에겐 마지막 퍼즐이 있다. 대구와



15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세이브 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스

부산과 서울이 뒤집어졌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광주”라고 했다.

이어 “먼저, 우리는 끝까지 싸우야 한다. 우리는 일회일비, 몰려서 지 않는다. 이길 때까지”라며 “둘째로 이 위대한 자유의 여정, 대한민국 제2의 건국을 위한 여정에 아름다운 도시 광주와 호남을 초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으며 이 순간 대한민국의 역사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이제는 좌·우의 싸움이 아니다. 지역갈등이 의미가 없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오직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국민주권에 전라도와 경상도, 좌·우가 어디 있는가. 오직 상식과 애국심만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자유는 오직 싸우는 자에게만 허락된 귀중한 가치”라고 했다.

지역갈등의 역사 종식시키고 하나된 대한민국 물려줘야

전한길 한국사 강사는 “민주화와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광주시민들의 열정을 강제로 꺾을 수는 없는 것 같다”며 “강단에 올라서기 전에 앞서 기도했다.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고, 다시 살아 날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일어나겠다는 희망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 모인 광주시민과 전국에서 오신 여러분들”이라고 했다.

전 강사는 “붉은 옷을 입었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이 자리 금남로에서 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피 흘리고, 희생하신 것을 잊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과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한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5.18 희생정신을 기억하며, 독재당에 맞섰던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고, 계몽령을 통해 국민들을 일깨운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역사를 바꿀 것이며, 이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했다.

이어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것은 1980년 5월 신군부에 맞서 싸웠던 정의로운 광주 시민들의 투쟁과 희생 덕분”이라며 “영국이 200년 걸린 민주화를 대한민국은 40년 만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일평생 동안 독재에 맞서 희생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

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라며 “남북통일을 이뤄 한민족 모두가 하나 되어 통일된 대한민국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문화 선진국이 되도록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서 선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선진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부터 지역갈등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모든 지역이 하나 된 대한민국을 2030 세대들과 미래세대들에게 통합된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또 다시 지역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통합을 무너뜨리는 반국가적·반민족적 역적으로서 국민주권의 주체인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악은 선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으며,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복귀 시켜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자는 우리의 주장은 선한 빛의 일이며, 진실을 찾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우리의 요구와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는 22일 오후 2시 대전시청앞 2번출구에서 진행되는 대전집회에 전한길 강사를 비롯한 여러 연사들이 함께 할 예정이다. ©cdaily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5 교단청년연합 겨울캠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고전 3:16-17)



2024 전국 청년 동계 연합수련회 기념촬영 광경

- 일 시 : 2025년 2월 28일(금)~ 3월 1일(토) 1박 2일
-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 수양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 등록비 : 1인 3만원
- 대 상 : 교단 산하 청년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청년국

국장 오세준 목사 010-5041-3411
차장 문찬우 목사 010-5420-2787

동계 연합수련회 일정보		
시 간	2월 28일(금)	3월 1일(토)
07	어서와요~	기상 및 초식
08		정리 및 숙소, 성령 침소
09		찬양 : 순복음이영교회 청년층
10		신앙의 Q&A
11		(인도 : 이경진 목사 / 작사 : 작곡)
12	집 수	폐회 예배 및 기도회
13		인도 : 이만석 목사
14	개회예배 찬양 : 오순절찬양교회 사회 : 오세준 목사 기도 : 순복음이영교회 청년층 설교 : 홍복영 목사	임으로~
15:00	총식	
15:10	(담당: 고대운 목사 / 아이스브레이크)	
16	특강 계광성명 의정부시청 방상필 감독	
17	찬양 콘서트 (빈트메이커스 송재홍 목사) 예수 나의 치료자 / 작사 : 작곡	
18:30	저녁식사	
19:30	초대식사 (담당: 고대운 목사)	
21	저녁 집회 경배와 찬양 : 대림 병영교회 강사: 김인찬 목사님 기도회 인도: 문찬우 목사	
23:30	야식	
24	취침	

월례회 개최...풍년 인생을 만들자!

경기남서지방회

경기남서지방회(회장 김기인 목사)는 지난 2월 10일(월) 헬몬산교회에서 지방회 월례회를 개최하고 나라를 위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한국교회와 교단, 지방회, 각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이광우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부회장 임경영 목사의 찬양인도, 대표기도와 이광우 목사(순복음새생명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목사는 마 13:1-23 말씀을 본문으로 '풍년인생 흥년인생'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씨뿌리는 말씀을 예로 들었다.

이목사는 "인생 농사는 단 한번 뿐이다.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풍년 인생의 원리 세 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첫째는 좋은 씨를 골라야 한다.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둘째는 좋은 땅에 심어야 한다. 좋은 땅은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여 결실하는 마음을 소유한 사람을 말한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깨달을 때 참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세번째는 인내하며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 가꿔야 한다. 인내가 요구된다"라며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해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축원했다.

이어 이미경 목사(순복음동방의빛교회)의 나라와 민족·교단과 지방회·개교회와 교역자를 위한 중보기도 인도, 이원정 목사(다메섹교회)의 헌금기도, 지방회장 김기인 목사(벤엘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김기인 목사 주재로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헬몬산교회에서 준비한 식사를 나누며 따뜻한 교제를 하고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갔다.

경기지방회

경기지방회(회장 안재봉 목사)는 지난 2월 16일(주일) 오후 4시 순복음아덴교회(담임 임형순 목사)에서 2월 정기월례회를 개최하고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월례회의 각종 회무를 은혜가운데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지방회 총

무 조광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재무 이동윤 목사의 대표기도, 회계 김경순 목사의 성경봉독, 이성기 목사(순복음마전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목사는 시 121:3-4 말씀을 본문으로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도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하

나님 감사해야 한다. 또한 밤낮 쉬지 않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당부하며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서기 윤진철 목사의 헌금기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안재봉 목사 주재로 회원점명, 지난회의록 보고 등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또한, 순복음아덴교회(담임 임형순 목사)에서 정성껏 준비한 만찬을 함께하며 즐거운 교제를 나누었다.



“기장-동성애 옹호 안한다” 일부 몰지각한 그룹 회개 촉구

한국기독교장로회 동성애·동성혼 반대 세미나 및 기도회 개최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동성애·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가 2월 11일(화) 홍성 평안하고든단교회(담임 오종실 목사)에서 제5차 세미나 및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김지연 약사가 강사로 나서 '동성애와 마약 중독'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김 약사는 최근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동성애 관련 용어 및 최근 정책, 의과학적 문제

점,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본 마약 및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의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어 김성한 목사(안양 은혜교회)가 '동성애,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신앙적 관점에서 동성애 문제를 조망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와 평신도들은 기장 교단에서 쿼어신학이 퇴출되기를 기도했으며,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와 총회의 바른 정체성

유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세미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박성화 목사(성산중앙교회)의 인도로 김창환 목사(서울강서교회)가 설교말씀을 전했다. 김목사는 요 14:11-15 말씀을 본문으로 다양한 이름에서 예수이름으로 복귀"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일부 문제 있는 교회와 목사들로 인해 기장 교단이 동성애나 평등법을 옹호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며 "기장은 교단의 공식적 차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내부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일부 몰지각한 그룹이 화개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기장 동성애·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에는 기장 목회자 331명과 장로 864명이 함께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기장의 기독교 공동체로서의 연합을 재확인하고, 동성애 및 동성혼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을 더욱 확고

히 하는 기회로 삼았다. 세미나에 함께한 한성도는 "기장 교단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대하는 집회가 좀 더 자주 열리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기장 교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경적 진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세상의 동성애와 마약 등 유해한 문화로부터 거정과 교회를 지켜내는 교단이 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기독교장로회 동성애·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는 5차례에 걸쳐 동성애·동성혼 반대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성경적 진리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기독교 공동체의 연합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올바른 가치관을 전파하기 위해 힘을 계속"이라면서 "교단을 넘어 다양한 교회와 협력하여 동성애 및 동성혼 반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cdaily



목양신문은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동성애자는 사랑으로 품지만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역차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제정을 반대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합니다!

- 구독문의(우편발송요금) 02)2677-9936
- 광고문의 02)2677-9936 FAX 0504)027-0897
- 웹하드 : ID mok677 PW 5277
- E-mail : mok2677@naver.com / mok2677@kakao.com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5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영합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http://gd.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5학년도 사이버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서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전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소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중만, 성령중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31)944-518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http://gd.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단 교역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① 원서 교 부 : 수시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③ 원서 접 수 : 수시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① 전형료 : 30,000원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영합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 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http://gd.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성혁명 교육에 국가 재정 사용 · 유네스코법 개정안 반대”

성명발표 진평연, 복음법률가회 등 506개 교계 및 시민단체

교계 및 시민단체들이 3일 유네스코법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진평연, 복음법률가회 등 506개 교계 및 시민단체 연합이 동참했다.

이들은 “유네스코 교육이 겉으로는 선진국형 교육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동성애와 성전환, 조기성애화, 낙태 등을 정당화하는 포괄적 성혁명 교육”이라며 “우리는 자녀들의 영혼과 육체를 파괴할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을 강력히 규탄하고 반대한 바 있는데, 이번에 발의된 유네스코법 개정안은 이러한 포괄적 성혁명 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이러한 사업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을 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은 포괄적 성혁명 교육 사업을 더 확대하고 보다 적극 시행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 자녀들을 망칠 성혁명 교육에 국가 재정을 이용하려는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유네스코 교육 실체가 자녀들의 영혼과 육체를 파괴할 망국적 성혁명 교육이라는 점을 부모와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어떤 사람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성혁명 교육에 국가 재정을 이용하는 유네스코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최근 김용태 의원(국민의힘)과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국회의원 21명은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유네스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네스코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두 가지로서, 하나

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및 산하기관인 아태교육원의 운영과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새로운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이고(안 제7조 제3항, 제4항, 제26조 제2항, 제28조), 그리고 아태교육원의 사업 내용에 세계 시민교육을 추가(안 제25조 제4항)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앞서 한국교회와 시민단체들은 유네스코 교육이 겉으로는 각 나라가 교육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선진국형 교육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그 실체가 동성애와 성전환, 조기성애화, 낙태를 정당화하는 포괄적 성혁명 교육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과 육체를 파괴하는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을 강력히 규탄하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우리는 금번 발의된 유네스코법 개정안이 이러한 포괄적 성혁명 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이러한 사업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유네스코법 개정안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반대한다.

첫째, 예산 지원과 관련한 사항이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유네스코헌장의 권고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민관 협력 형태로 설치된 공직 유관단체이다. 현행 유네스코법은 국민의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두고 있고(제6조), 국가가 아태교육원의 운영과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6조). 이에

따라, 현재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아태교육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막대한 규모의 운영 및 사업경비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 지원 규모는 2021년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약 40억, 아태교육원에 약 80억 등 총 120억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게다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위 예산 지원과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회관을 건립해 2021년 기준 연간 76억원의 임대 수입과 8억의 기부금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자체 수입 및 예산 지원을 합하여 연간 200억 이상에 달하는 엄청난 재정을 조달하고 있으면서도, 법 개정을 통해 또 새로운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과도하고 불필요한 중복지원의 문제가 있다.

이에 더하여 금번 유네스코법 개정안은 아태교육원에 대한 공유재산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아태교육원에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했다. 원래 공유재산의 특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지방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 수익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및 아태교육원의 ‘운영과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구체적 범위와 내용이 명확하고 적절하게 정해지지 않는다면 무분별한 예산 지원으로 이어져 국민의 세금 부담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둘째, 유네스코 교육의 핵심 기관인 아태

교육원의 사업 내용과 관련한 사항이다. 유네스코는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세계문화유산을 지정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문화재 관련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의 대부분을 교육부가 부담하고 있고, 유네스코의 사업운영 경비 90% 이상이 교육 분야에 투입되고 있으며, 교육부장관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장이기에, 유네스코의 핵심 사업은 교육 분야라 할 수 있다. 즉 유네스코법 개정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새로운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로 교육 분야에 대한 사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유네스코 교육은 겉으로 보면 각 나라에 모범이 되는 선진국형 교육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우리의 미래세대를 파괴하는 망국적 성혁명교육을 구현하는 것이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유네스코 교육의 방향과 내용은 2021년 유네스코가 발표한 〈교육의 미래 보고서〉에 소개되어 있다.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교육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의 조항 곳곳에는 동성애와 성전환, 조기성애화, 낙태를 정당화하는 포괄적 성교육, 성평등, 성인 지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고,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과 젠더정체성을 포함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전체주의적 신사회주의 이념이 추구하는 교육이다. 이러한 성혁명 교육을 근간으로 하는 SDGs 17개 목표를 2030년까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유엔과 유네스코 교육이다. 교육원

의 가장 최우선권을 가진 주체가 부모가 되어야 함에도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언급하지 않고 국가와 학교의 교육권만을 언급한다. 유네스코가 이러한 포괄적 성교육에 관하여 제정한 가이드라인인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이들의 조기성애화, 성적자기결정권,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유네스코 교육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분별력이 약한 우리 자녀들에게 동성성행위, 성전환행위, 유소년성행위, 낙태행위 등이 무분별하고 무절제하게 확산되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망치고 건강간 가정과 사회와 국가까지 파괴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해외 다수 선진국 교육을 오염시켜 그 나라의 미래세대를 망치고 있는 성혁명교육의 해악을 직시해 온 한국교회 성도들이 일찍이 반윤리적이고 반성경적인 성혁명 교육을 반대하는 강력한 저항운동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국가교육위원회는 조기성애자와 성전환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이 성혁명을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성취기준 해설을 명확히 하라는 의결을 하였고, 교육부가 이를 반영하여 2022개정교육과정 고시를 통해 섹슈얼리티를 삭제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자기 보호라는 본래적 의미 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젠더 용어 등을 삭제하여 젠더주의를 배격하였다. 따라서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은 우리나라 공교육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 법인

2022개정교육과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위법성을 가진다. 전체주의적 신사회주의를 추구하므로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질서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도 위반하고 있다. 또한 특정 파당적 교육을 금지한 교육기본법에도 위반한다.

결국 유네스코법 개정안에서 교육 사업을 확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포괄적 성혁명 교육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므로, 유네스코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을 망치는 성혁명 교육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이용하려는 유네스코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나아가 현재도 포괄적 성교육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데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데, 만일 유네스코 교육의 실체가 우리 자녀들의 영혼과 육체를 파괴하는 망국적 성혁명 교육이라는 점을 자녀들의 부모를 비롯해 국민이 알게 된다면, 어떤 사람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미래세대를 망치는 교육에 우리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고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자각하여, 더 이상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즉시 유네스코의 성혁명 교육에 예산 지원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2. 3
진평연, 복음법률가회 등 506개 교계 및 시민단체 연합 일동

살롱나비 / 트럼프 2기 출범에 바란다

“MAGA를 표방하는 트럼프2기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신고립주의아닌 세계평화의 조정자의 역할을 지속해주기 바란다”

2025년 1월 20일 미국 47대 대통령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는 예고한대로 2월 1일(현지시각) 캐나다 · 멕시코산 수입품에 25%, 중국산에 10% 추가 관세를 물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월 4일부터 실행되어 미국발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19세기부터 인류 번영을 이끈 자유무역을 위협하는 경제적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ke America Great Again, MAGA)는 구호로 압도적으로 당선된 트럼프 2기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과의 안보 및 무역 전쟁, 국제적인 무역전쟁 속에서 서방국가 및 국제사회의 긴장을 초래하고 있다.

트럼프는 선거 캠페인에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살리고, 안보면에서는 해외 미국군의 주둔비를 절감하는 등 나토(NATO) 지역 및 한국, 일본의 미군 주둔비를 대폭 올리고, 국방비 증액에 인색한 나토(NATO)에 대하여 나토 탈퇴 경고를 하고 있다. 그의 미국 우선정책은 우방인 서방국가 및 무역강대국으로 G2까지 추격한 중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 시진핑의 공산주의 체제의 경제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반중국 무역정책 시행, 김정은과의 개인적 친근성을 내세워 대한민국 정부를 패상하고 북한과의 일방적인 협상을 통하여 북한 핵을 인정하고 미국에 위협이 되는 ICBM과 SLBM은 유보하는 등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한 정책을 취할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살롱나비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 70여 년동안 유지해온 한미동맹의 기본 축 위에서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 크렘린 2기 정부와의 협력관계를 다져나가기를 바라면서 다음의 견해를 표명하고자 한다.

1. 트럼프 2기 집권은 MAGA 구호로 서방 자유세계를 긴장하게 만든다.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신고립주의아닌 세계평화의 조정자의 역할을 지속해주기 바란다.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는 나토(NATO)가 군사비 지출에 인색한 점을 들어서 나토에서의 탈퇴를 경고하고 있다. 이

는 바람직하지 않다. 트럼프 1기 시절 트럼프는 나토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그러다가 바이든 정부에 와서 나토와의 관계가 정상화되었다. 이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과 나토와의 관계에 긴장이 생기고 있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은 나토의 역할을 강화해야만 한다. 그레아만 2차세계대전 후 지켜온 동유럽국가들의 서방 자유진영체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한다는 것은 서방 자유진영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여태까지 지켜온 국제평화의 중심 축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안게 되는 것이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유발된 3년차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치게 하되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우크라이나가 중립화하는 것을 막고 서방 진영에 편입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레아만 동구권의 폴란드 등 여러나라가 함께 힘을 합쳐서 러시아에 대항하여 서방 자유진영 불복을 경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러시아의 침공을 3년차 방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옛 소련연방인 러시아의 동구권(東歐圈) 서진(西進)을 막아내는 자유세계의 최전방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이 1차 세계대전 후에 고립주의로 되돌아간 결과 2차세계대전을 불러 일으킨 과거를 교훈하기 나토 탈퇴 등 신고립주의가 아닌 세계평화의 조정자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주기를 바란다.

2. 상업주의적 방위비 요구는 자유 원조(元祖)로서 미국 품위와 국격을 떨어뜨린다.

“동맹국도 돈을 내야 지켜준다”는 트럼프식 동맹관은 전통적 미국상에서 많이 변질되었다.

70년전 한국전쟁 미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인종과 피부색이 생소한 가난한 한국을 위하여 2만 8천명이 생명을 바친 자유주의 국가로 칭송을 받았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런 미국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이 아니라 독일과 일본이

더 걱정해야 할 처지다. 해외 주둔 미군 규모는 일본(6만5000여 명), 독일(3만5000여 명), 한국(2만8500여 명)이 세계 1~3위다. 트럼프가 강조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 면에서는 한국만 모범 국가다. 그런데 트럼프는 첫 임기 때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약 7조원)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근에는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 · 돈을 찍어내는 기계)’이라 부르며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트럼프는 인류의 자유와 평등과 평화 가치를 지키는 미국의 위상을 방위비 분담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위해 생명을 희생한 수많은 미국 병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시키고 있다.

3. 미국 중산층 쇠퇴를 야기한 미국제 조업 경제 침체는 트럼프 집권 2기를 불러왔으나 미국은 국제 우호관계를 중시해서 유연한 대외무역 정책을 펼쳐야 한다.

트럼프는 2기 트럼프노믹스의 핵심을 ‘낮은 관세와 세금’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으로 기업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엄청난 인센티브”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주요 70개 교역국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있어서 트럼프가 전쟁을 선포한 무역, 안보, 이민 분야를 종합한 결과 트럼프 리스트가 가장 큰 국가는 멕시코, 3위 독일, 6위 중국, 7위 일본, 9위 베트남, 한국은 10위권에 없었다. 통상 문제로 한국은 대미 흑자 규모가 우리보다 큰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대만, 일본 등보다 트럼프의 우선순위에서 비껴나 있다. 한국은 작년 215억달러를 투자한 세계 최대 미국 투자국이라는 이점(利點)도 있다.

트럼프는 미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산 수입품에 대하여 높은 관세(중국에 60~100%, 외국산에 10%)를 부여할 것으로 예고했다.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미국의 중산층을 이루었던 리스트 벨트(Rust Belt, 중부 쇠락한 공업지대)의 공장과 기업을 다시 살리기 위한 것에 주안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방적인 높은 관세 정책

은 국제적인 자유로운 무역 질서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며, 미국 자체가 무역 관계에서 역작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매우 유연한 정책으로 미국이 이룬 세계 자유무역 질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지나친 관세 정책은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4.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는 전통적 가치를 중요시한 트럼프 복귀에 공헌을 하였다.

이번 트럼프의 압도적 재선에는 미국의 복음주의 신자들이 미국적 가치 복권을 천명하는 트럼프를 지지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미국의 현지 주요 언론인 CNN, 뉴욕 타임즈, CBS, NBC, ABC 등이 8년 전 힐러리 민주당 지지로 트럼프 당선에 불리하게 여론을 몰고 갔으나 예측에 어긋났다. 이번에도 민주당 헤리스가 전국 여론 조사에서는 앞선 것으로 나왔으나 실제 투표에서는 경합주들(Swing States)에서 대부분 트럼프가 앞선 것으로 나와 당선되었다. 이번에는 리스트벨트 유권자들이 미국 우선주의 구호를 내건 트럼프 지지로 돌아선 것을 나타냈으며 그 가운데 특히 미국의 전통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트럼프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복음주의 교회 지도자들도 트럼프의 승리를 위하여 연대함으로 나타났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와 신자들은 전통적 미국 가치 복권을 천명함 트럼프 정책을 많은 부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미국의 보수적 가치(청교도 정신, 양성 평등 가치, 생명 존중, 양성 가정 지킴 등)를 지키는데 트럼프 정부와 노력하기 바란다.

미국의 정신인 청교도 유산(遺産)이 전해준 창조주 경의, 인권, 자유, 평등 가치가 20세기에 들어와 좌파 이념인 정치적 올바름(PC) 주의에 의하여 왜곡되었다. 정치적 올바름이란 본래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는 좋은 취지

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세속 리버럴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남용되면서 다양성 수용, 인종, 계급 차별을 없애자는 처음의 참신성이 왜곡되어 버렸다. 그리하여 PC는 정치적 좌파의 구호물로 변질되었다. PC주의는 차별금지를 내세우며 동성애 허용을 주장하며, 여성 인권 미명아래 낙태 허용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PC주의는 미국이 유래한 청교도 정신에서 이탈한 세속자유방임사상에 편승한 것이다. 청교도 정신에서 시작한 공립학교에서 심지어는 성경을 가르치며 기도하는 것 자체가 특정 종교를 우대하며 타종교를 박대하는 차별 정책이라고 이를 폐지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하여 전통적인 “메리 크리스마스”(Merry Christmas)도 특정종교를 우선시한다고 하여 “해피 홀리데이”(Happy Holiday)로 바꾸는 등 전통적인 가치가 무너졌다. 이에 전통 가치를 중요시한 트럼프 현상이 미국사회에 새로운 풍조로 등장한 것이다. 동성애 반대와 낙태 방지는 청교도 전통을 중시한 미국사회의 전통적 가치에 속한다. 트럼프 2기가 단지 경제적으로 무너진 리스트 벨트를 되살릴뿐 아니라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다시 살려주기를 바란다.

6. 대한민국은 트럼프 2기의 도전에 대비하는 첨단제조업 육성 인프라를 준비해야 한다.

20세기 초 미국은 세계 제조업의 근거지였다. 오늘날 미국은 제조업의 퇴락으로 리스트벨트가 생겨나고 미국 중산층이 무너지는 상황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큰 표차로 당선되고 보호 무역을 강조하는 트럼프 2기 정부가 탄생하길 바란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 위상은 1963년 한미동맹의 체결시와는 상전벽해라고 할만한 정도로 그 국제적 위상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세계 2위 장수국이며, 의료보험체계가 가장 잘 된 국가,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에 밀린 해상 안보 강화를 위해 한국 조선업계에 선박 유지, 보수, 정비(MRO)사업에 대한 협력을 요청한 세계 2위 조선(造船)대국이며, G7국가 반열에 오른 국가이며, 세계 5위의 군사력 보유국으로 위상을 갖고 있다.

7년으로 이어집니다

위권 국력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 성장했다. 주요 경제국 모임인 G20 회원국이며, 강대국 모임인 G7 가입도 전망된다. 지난해 수출은 역대 최대인 6838억달러였으며 일본 추월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일 간 수출 격차는 2008년 3599억달러였으나 지난해 상반기엔 35억달러까지 좁혔다. 한국의 광범위한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몇 안 되는 국가다. 유럽에 전투기와 탱크, 자주포, 미사일을 판매하는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이기도 하다. 올해 K원전은 역대 최대인 24조원짜리 체코 원전을 따낸 데 이어 20조원 규모의 불가리아 원전 수주에도 성공하며 ‘원전 르네상스’를 열었다. K팝과 드라마, 영화와 같은 한류는 세계인을 열광시키고 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문화 강국 위상은 더 굳어졌다. 이 가운데 중국은 과학기술적 사회주의를 모토로 하여 시진핑의 독재적 통치하에 미국의 무역장벽에 대하여 첨단 기술 육성으로 헤쳐 나가고 있다. 이제 한국기업이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등에서 첨단 기술의 우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7. 트럼프 정부는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대한민국과 협의하여 북한의 핵보유론과 통일반대론에 대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을 협의해야한다.

트럼프는 1기때 김정은과 두 번의 회담을 근거로 김정은과의 좋은 인간 관계를 표명하고, 북한 핵을 용인하고 이를 대가로 군축 회담을 제의하고 북핵 포기 대가로 미군 철수를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대한민국 안보가 트럼프의 노벨상 평가 점수를 채워주는 제물로 바쳐져서는 안 될 일이다. 트럼프 2기 정부는 한국정부를 패상하지 않도록 외교적인 공조를 해야하고 트럼프의 북한정책을 상의하는 외교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은 미국에 대하여 그만큼 요구를 할 국제적 위상에 있다는 것이다. 2025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1963년 한미동맹의 체결시와는 상전벽해라고 할만한 정도로 그 국제적 위상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세계 2위 장수국이며, 의료보험체계가 가장 잘 된 국가,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에 밀린 해상 안보 강화를 위해 한국 조선업계에 선박 유지, 보수, 정비(MRO)사업에 대한 협력을 요청한 세계 2위 조선(造船)대국이며, G7국가 반열에 오른 국가이며, 세계 5위의 군사력 보유국으로 위상을 갖고 있다.

국장협, ‘엘리트 오디션’ 성황리 종료

차세대 발달장애 전문예술가 발굴을 위한 특별 오디션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중앙회(이사장 최궁열, 이하 국장협)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후원한 ‘2025 엘리트 오디션’이 지난 2월 6일(목)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 오디션은 발달장애 클래식 음악 전공생들의 예술적 잠재력을 발굴하고 전문 예술가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날 오디션은 전국 각지의 발달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악(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관악(플루트, 클라리넷, 트럼펫, 트롬본, 색소폰 등), 피아노 등 총 3개 부문에서 실기 심사가 이루어졌다. 지원자들은 3분 이내의 자유곡을 연주하며, 국내 클래식 음악대학 입시곡에 준하는 수준 높은 곡으로 참가해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심사는 곡 적합성, 표현력, 기복기, 발전 가능성, 곡 완성도 등 5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되었으며, 심사위원단은 국내 클래식 전문가 및 장애 예

술 전문가로 구성되어 공정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엘리트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은 국장협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장애인문화예술학교>의 실기 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연주 활동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 학생들이 예술적 역량을 키우고 전문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국장협은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연주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 공연뿐만 아니라 영국(미국) 공연을 계획하고 있으며, 국제 무대에서도 이들의 재능을 선보일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디션의 결과는 2월 21일(금) ‘찾아가는 장애인문화예술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국장협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및 공연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발달장애 예술가의 저변을 넓히고, 보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다.



6면에서 이어짐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 안보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만큼 동맹 당사자인 대한민국을 패싱하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와 공조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8. 한국교회는 미국정부의 정책이 한국의 경제와 정치의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민간부문의 역할 하는 것은 중요하다.

탄핵정국으로 인하여 한국 대통령이 유고(有故)를 당하여 외교적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된 이 어려운 시기에 독실한 신앙을 가진 트럼프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통한 친선과 국가적 중요 관심사를 전달하는 것은 중요하다. 신세계 그룹 정용진 회장은 그와 개인적 친분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가의 위기때 지도층의 개인 관계도 중요하다. 625 북한의 남침의 위기 상황에서 미국 트루만 대통령과 이승만 사이에는 기독교와 반공(反共), 자유민주주의 신념이 공유되었고, 한국에 와서 북음전도집회를 인도한 빌리 그래함 목사가 트루만 대통령

에게 신앙의 자유 나라 한국을 지켜달라고 조연한 사실은 유명하다. 일본에 주둔한 미국의 맥아더 사령관과 이승만의 개인적 친밀관계도 중요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미국 북음주의 교회 지도자들을 움직여 트럼프와 그의 행정부 관리들이 신앙의 자유 나라 대한민국을 북한과 달리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한다는 것은 필요하다. 다각적 민간 외교와 교회의 국가를 위한 기도가 요청된다. 이러한 가운데서 한국의 대행 체제 정부는 전통적 한미동맹의 체념을 가동하여 트럼프 정부와 공식적인 외교채널을 가동하여 탄핵 소용돌이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체제가 정착하도록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하는 외교적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다.

2025년 2월 10일
살림을 꾸꾸는 나비행동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복음의 종소리

태양의 기상 여명이 밝아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 따라 마음의 동토 설결에 이르렀네. 이 찬란한 숨결이여 천상의 비경인가, 인생의 순례자여 하늘을 보고 땅을 보라. 양심의 외치는 태고의 소리를 경청하라. 아 양심의 맥박이여 기지개를 펴고 일어서라. 진실의 강이여 절망의 숲 넘어 희망의 포구로 인도하라.

오 주여! 겸손히 엎드리어 무릎 꿇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주여! 도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 죄과를 도말해 주소서! 말할 수 없는 악행을 사하여 주소서. 한국교회 목회자들 먼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회복되게 하소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게 하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에 빠신바 된 백성이 되게 하소서. 회복되게 도와주소서. 양심이 마비되었습니다. 도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소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도덕이 회복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무엇보다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소서.

살기 좋은 나라 예수 잘 믿는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 주게 하소서.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 전도자

로 살게 하소서. 가족세트 전도 총재 박영수 목사는 올해도 국내외 복음전도 스케줄로 가득 찼다. 어디든 가오리다. 오지라도 가오리다.

호롱불이 켜지는 곳이라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암울한 곳이라도 가오리다. 주여! 가라 하면 가고 서라하면 서겠나이다. 어디든 복음 들고 가오리다. 사랑의 종소리, 생명의 종소리, 복음의 종소리. 온 세계 위에 널리 널리 전하리이다.

지난해도 미국,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 일본 등 여러 나라 복음전도와 집회로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올해의 사역도 국 외 전도와 선교로 주님은 부르시고, 쓰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는다. 다만 더욱 겸손하게 하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준위의 앞잡이라.

한국교회 모든 주의 종들이 겸손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엎드리어 무릎 꿇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가족세트전도 총괄본부장 이수 교수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592-1691, 010)3730-2573



장기기증운동본부 제주 라파의 집 후원

신부전환자위해 사용, 전국 8개 교회 후원금 2,050만원

(재)사람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목사)는 8개의 교회가 만성 신부전 환자를 위한 제주 라파의 집에 2,050만 원을 후원하며 생명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19일 전라북도 군산의 군산서문교회(담임 장지산 목사)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생명나눔예배를 드렸다. 올해 창립기념일을 맞은 군산서문교회는 지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 생명나눔예배를 드리며, 장기부전으로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예배에서 교회의 담임 장지산 목사는 “우리의 몸과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며, 마지막 순간 그 선물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라고 전하자, 성도들이 장기기증을 약속하며 사랑을 실천했다.

장 목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한 성도들을 보며 장기기증 운동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루는 일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며, “창립 50주년을 맞아 성도들과 함께 이웃을 섬기며 나눔을 이어갈 수 있어 더없이 기쁘다”라고 밝혔다.

군산서문교회는 지난해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에 모은 현금 1,000만 원을 제주 라파의 집에 기탁했다. 2025년에도 교회는 생명나눔 활성화와 운영을 위한

봉사활동 및 물품 기부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밖에도 서귀포제일교회(배성열 목사)와, 은혜광성교회(박재신 목사), 이촌동교회(김성진 목사), 제주드림교회(김태만 목사), 제주로아교회(최기완 목사), 제천백운교회(신상균 목사), 큰빛침례교회(김선주 목사)가 라파의 집에 후원의 손길을 더했다.

월드비전 홍진경과 함께 아프리카 소녀들 후원

소녀들 조혼막고 학교에 보내기 ‘1000명의 소녀들’ 캠페인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은 2월 11일부터 방송인 홍진경과 함께 조혼 위기에 처한 1000명의 아프리카 소녀들을 후원하는 ‘1000명의 소녀들’ 캠페인을 진행했다.

아프리카 국가에는 아직도 재정적 어려움과 식량 불안, 문화적·사회적 악습으로 가족이나 지참금을 받고 18세 미만 아동이 결혼하는 조혼 악습이 남아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 1420만 명의 소녀들이 만 18세가 되기 전 결혼하며, 그로 인해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과 성착취

대상이 된다.

이에 월드비전은 방송인 홍진경과 함께 아프리카 소녀들의 조혼을 막고 학교에 보내기 위한 ‘1000명의 소녀들’ 캠페인을 진행했다. ‘1000명의 소녀들’ 캠페인 참여시 아프리카 소녀와 후원 매칭이 되며, 조혼의 위기에 처한 소녀 지원과 지역개발사업을 후원하게 된다. 정기후원에 참여한 후원자에게는 책가방을 메고 있는 ‘월드베어’ 키링을 선물했다.

‘월드베어’는 후원을 통해 예쁜 가방을 메고 학교에 다니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소녀의 모습을 상징한

다. 월드베어가 메고 있는 책가방은 블루투스 이어폰 케이스로 사용 가능하다. 후원금은 우간다, 케냐, 가나, 부룬디, 시에라리온 5개국의 소녀들을 위한 △조혼 방지를 위한 부모와 지역민의 조혼 인식개선 사업 △조혼과 성폭력, 학대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신고 창구 마련 및 위기 상황 개입을 통한 아동 보호 사업 △성교육, 생리 관리 교육 등 소녀들의 성생식보건교육 △생리대 지원 및 위생적인 여아 화장실을 만드는 환경 개선 사업 △성인이 된 뒤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창업 교육 등 경제적 역량 강화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70인 천년초식품

천년초의 효능

1)폐농성물질

-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취실현)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냄)

2)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금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갑상선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여남.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토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성교회

신비한 자존감



어느 날 아침에 한 무리의 노예들이 고된 일터로 끌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힘도 없어 보였으며 고개를 꼭 숙이고 힘 없이, 표정 없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쓰러지는 사람도 있었으며, 그들 중 몇몇은 심하게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곳곳에 피멍이 들었으며 그들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보였습니다.

절망이 그들을 누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들 중에 오직 한 사람의 노예만은 머리를 꼿꼿이 세운 채 밝은 얼굴로 당당하게 걸 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를 궁금히 여긴 주인이 청지기에게 물은즉 대답은, 그 당 당한 노예는 아프리카에서 잡혀오기 전에 어느 한 나라의 왕의 아들이었는데, 그는 자신이 왕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자나깨나 늘 자신의 신분에 대하여 확 고한 신념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젊은 노예는 자신이 왕자라는 확신이 그를 당당하게 행동하도록 했던 신비한 자존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프러시아의 황제 프레데릭은 감자대왕이라고 불리웁니다. 당시 사람들은 감자를 악마의 식물이라고 해서 먹기를 꺼렸으나 기근 때에 백성들의 굶주림 을 해결해 줄 식물로 여겨서 군주들에게 감자를 재배해서 백성들의 굶주림을 면하게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황제 프레데릭은 어느 날 아주 특별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위엄 있고 당당하지만 근엄하면서도 인자한 노인의 모습에 황제인 프레데릭도 그

노인을 존경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을 불러서 “당신이 누구신가?” 라고 했더니 노인이 하늘을 가리키며 하는 말, “저 하늘나라의 왕자요”라고 했 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니 당연히 자신들은 왕자라는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왕의 자녀라는 존재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왕자라는 사실을 확인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이 신비스 러운 자존감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국가권력의 위협 가운데서도 신앙인의 의연함을 잃 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17세기 청교도들은 신대륙 황무지에서 신앙을 다시 시작할 때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어떤 고 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무슨 일이나, 신앙의 일에 대하여 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야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같은 믿음이 신비한 자존 감이며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가 된 백성이니”(벧전 2:9)

초대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나라를 위한 기도

나사로가 죽었듯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죽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께 알리듯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
기도로 사랑하는 조국의 안타까움을
알립니다.

당장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지지 않고
이들을 유하신 이유가 있으셨던 것처럼
자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악자들은
지켜보고 계신 주님을 이 새벽에 깨닫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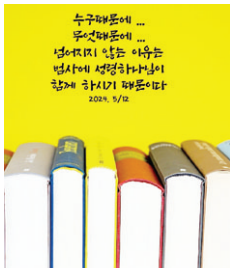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듯
대한민국에 삼권분립의 법치국가로
복음이 꽃피는 자유민주주의를
살려내실 것을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로 말미암아이니요.

구원을 펼치시는 하나님께로만
가능한 일기기에 이들을 기다리듯
때를 따라 일하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헌법재판소의 판사 속에 양심의 소리를
듣도록 강권받게 하시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옵시고 작금의 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모르두개를 심판하려했던 장대에
하만이 심판받게 하신 주님은 ‘역전의 명수’
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5.2.12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관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 락 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 수 교 대 한
하나님의성회

제73차 총회 제4회 실행위원회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73차 총회 제4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일 시 : 2025년 3월 13일(목) 오후 1시 (11시 30분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2월 28일(금)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

또는 팩스(02-2677-5181)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0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김 영 준
총 무 목사 오 세 준